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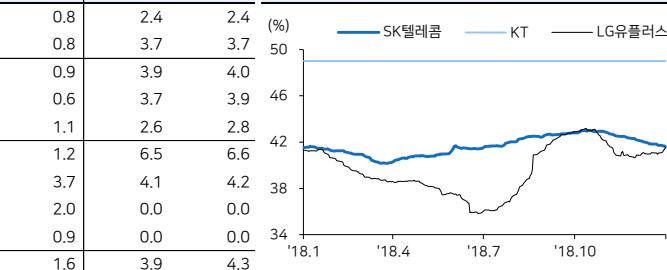
2019.01.14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KOSPI	3.2	0.3	-4.0	-10.2	9.1	9.1	0.8	0.8	2.4	2.4	
통신업종	-5.5	-5.3	-1.5	8.8	8.1	8.1	0.8	0.8	3.7	3.7	
SK텔레콤	-5.7	-6.9	-2.4	10.9	6.2	6.8	1.0	0.9	3.9	4.0	
KT	-4.2	-4.9	1.7	6.7	10.7	10.1	0.6	0.6	3.7	3.9	
LG유플러스	-6.7	-5.4	-0.3	15.1	13.0	12.1	1.2	1.1	2.6	2.8	
AT&T	1.7	3.9	-2.8	-3.1	8.8	8.6	1.3	1.2	6.5	6.6	
Verizon	2.9	-1.4	8.8	13.0	12.4	12.3	4.5	3.7	4.1	4.2	
T-Mobile	2.2	5.3	4.2	14.7	20.6	17.5	2.3	2.0	0.0	0.0	
Sprint	2.6	7.2	2.6	15.8	32.8	167.6	1.0	0.9	0.0	0.0	
NTT Docomo	4.5	0.0	-11.6	-8.4	13.1	13.1	1.6	1.6	3.9	4.3	
KDDI	0.5	0.5	-9.1	-15.1	11.3	10.3	1.7	1.6	3.4	3.8	
Softbank	8.5	-14.7	-22.8	-17.9	7.8	10.0	1.6	1.4	0.6	0.6	
China Mobile	4.2	3.6	2.6	14.8	12.3	12.2	1.4	1.3	4.0	4.0	
China Unicom	2.2	-3.5	-3.7	-9.8	26.3	16.7	0.7	0.7	1.6	2.5	
China Telecom	3.8	2.0	2.5	14.7	14.0	12.9	0.8	0.8	2.9	3.2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SKT 41.6% (-0.1%p WoW, -0.8%p MoM)
KT 49.0% (Flat WoW, Flat MoM)
LGU+ 41.6% (+0.5%p WoW, +0.8%p MoM)
SK텔레콤 외국인 지분율 소폭 감소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율 상승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1월 둘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8.7%p 수익률을 기록하며 Underperform 대외 변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방어주로서의 통신주에 매력 약화
SK텔레콤은 연내 중간지주 전환에 대한 의지 표명. 또한 국내외 미디어 기업들과 협력 계획 발표
국내 기관은 통신 3사 순매도, 외국인은 SK텔레콤 순매도, LG유플러스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16일 과방위가 KT 화재 관련 상임위를 열고 피해 보상 상황을 파악
통신 3사 4Q18 합산 영업이익은 6,114억원 수준으로 시장 컨센서스(7,278억원)를 크게 하회 전망
4Q18 실적 부진과 외국인 지분율 하락 우려로 1Q19 통신 섹터에 대해 보수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
5G 수주로 2019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KMW, RFHIC, 에이스테크, 다산네트웍스 등 주요 업체에 주목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6	7	8 CES 2019 개막 (현지시각)	9	10	11 CES 2019 폐막 (현지시각)	12
13	14	15	16 과방위, KT 화재 상임위	17	18	19

3

주간 뉴스

▶ SKT, 중간지주 전환 연내 추진 재확인…속도 낼까?

(Newsis)

- 박정호 사장은 8일 CES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내에 중간지주 전환하겠다는 의지 표명
- SK텔레콤을 물적분할해 중간지주회사로 만들고, 하이닉스 등 자회사를 밑에 두는 방안이 유력
- 박 사장은 "SK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지금이 기회라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
⇒ 재원 마련 방향에 대해서는 MNO를 분할 후 재상장시켜 투자 받는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
⇒ 당분간 시장의 관심은 추가 지분 9.9% (약 4.6조원) 취득 방법 및 시기에 집중될 전망

▶ SKT, 美지상파 쌍클레어와 합작회사 세운다

(ZDNet Korea)

- SK텔레콤은 미국 방송사인 쌍클레어방송그룹과 합작회사를 설립, 미국 방송 솔루션 시장 공략
- 양사는 합작회사에 각각 1천650만 달러씩 총 3천300만 달러를 투자해 공동 경영할 방침
- 합작회사는 ATSC 3.0 방송 솔루션과 장비를 공동 개발해 연내 미국 내 최초 상용화를 목표
⇒ 또한, SK텔레콤은 미국 이외 국가의 미디어 기업 두곳과 추가로 합작 회사를 설립할 계획
⇒ 5G 시대의 주요 서비스로서 미디어 산업을 강화할 계획. 향후 옥수수 브랜드 명도 바꿀 예정

▶ [CES 2019] 넷플릭스 이어 구글…LGU+ "VR콘텐츠 1위" 포문

(아이뉴스24)

- 하현회 LGU+ 부회장은 CES 기자간담회에서 구글과 VR콘텐츠 공동 제작에 합의했다고 발표
- 5G 스마트폰 상용화 시점에 맞춰 VR 플랫폼을 오픈할 계획. 우선 파일럿 VR콘텐츠 제작에 합의
- 양사는 공동 콘텐츠 편드를 조성해 을 상반기 중 VR콘텐츠를 제작, 배포할 예정.
⇒ 콘텐츠 소유권과 국내 배포권은 LG유플러스가, 글로벌 유통권은 구글이 갖는 형태로 제휴
⇒ 제작되는 VR콘텐츠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소속 톱스타들의 일상을 경험하는 콘텐츠가 될 전망

▶ 5G 'KT 필수설비' 임차 가능…투자비 부담 줄어들까

(디지털타임스)

- 과기정통부는 유선망에서만 공동 활용하던 관로 등 필수설비를 5G 무선망 구축용도에도 개방
- 13일 이용대가 재산정. 도심 내 인입관로의 이용대가는 현행 유선망 이용대가 대비 16.4% 증가
- 최소임차거리를 3년간 점차 축소하여 2022년부터 폐지키로 합의.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
⇒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이지만, 핵심 설비 이용 대가가 인상돼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 제기
⇒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최소임차거리가 폐지되면서 총 투자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

▶ 화웨이 중국인 직원, 폴란드서 체포…제2의 화웨이 사태되나

(중앙일보)

-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당국은 스파이 혐의로 화웨이 직원 한 명과 폴란드인 직원 한 명을 체포
- 폴란드 경찰은 폴란드인 직원(폴란드 통신사 소속)이 중국에 대한 첨보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
-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안에 매우 우려한다는 성명 발표. 화웨이는 상황 파악 중이라는 입장
⇒ 조사는 3개월간 지속 예정. 외신은 이 조치가 제2의 화웨이 사태로 번질 가능성 있다고 보도
⇒ 한편, 미국은 화웨이의 연구개발 센터인 '퓨처웨이'의 기술 수출 라이선스 갱신을 거부

▶ 김성수의원 통합방송법 발의…OTT 넷플릭스는 신고사업자

(디지털타임스)

- 12일 김성수 의원은 일명 '통합방송법'을 발의. IPTV사업법과 지특법 등 방송 관련법을 통합
- 개정안에 따르면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푹' 등을 등록사업자, 반면 넷플릭스 등을 신고사업자
- 서비스 확대 위해 OTT에 최소규제 적용. 규모에 관계없이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 의무만 부여
⇒ 국내 관련 규제는 걸음마 단계. 향후 'Oksusu' 등 국내 OTT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 방송계는 역차별 해소를 주문 중. 방통위는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까지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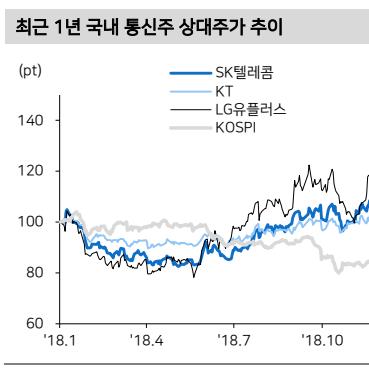
주요 지표

(집약달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한국	SK텔레콤	263,500	19.0	15.2	15.8	1.2	1.3	3.1	2.7	4.0	4.2	5.9	5.7	16.8	13.5
	KT	29,300	6.8	21.1	21.4	1.2	1.2	0.6	0.7	4.2	4.3	2.6	2.5	5.8	5.8
	LG유플러스	16,750	6.5	10.8	11.1	0.8	0.8	0.5	0.5	2.3	2.4	4.0	3.8	9.9	9.6
미국	AT&T	30.9	224.7	171.3	185.3	31.6	37.2	22.8	25.2	56.3	60.8	7.1	6.6	15.1	15.5
	Verizon	58.0	239.7	130.9	132.0	29.4	30.9	18.9	19.8	47.3	48.5	7.4	7.3	38.7	32.5
	T-Mobile	69.0	58.5	42.7	46.3	5.4	5.9	2.8	3.3	12.2	13.0	7.2	6.8	11.8	12.4
	Sprint	6.4	26.0	32.4	33.3	2.6	2.7	5.5	0.2	11.1	11.9	5.2	4.9	14.1	0.8
일본	NTT Docomo	2,575	89.8	44.2	44.6	9.1	9.2	6.7	6.4	13.9	14.0	6.1	5.9	12.6	12.4
	KDDI	2,665	62.2	45.8	47.4	9.0	9.4	5.3	5.7	14.1	14.5	5.2	5.1	15.6	15.7
	Softbank	7,698	78.2	83.8	86.7	11.5	12.7	9.7	7.3	25.1	25.7	8.7	8.5	20.9	11.0
중국	China Mobile	80.0	208.9	110.2	112.5	17.4	17.2	17.1	17.2	40.9	41.8	3.4	3.3	11.4	10.7
	China Unicom	8.5	33.2	42.2	44.4	1.3	2.2	1.2	2.0	12.8	13.6	2.7	2.5	2.7	4.2
	China Telecom	4.1	41.9	56.1	58.4	4.2	4.5	3.0	3.2	15.5	16.1	3.3	3.2	6.1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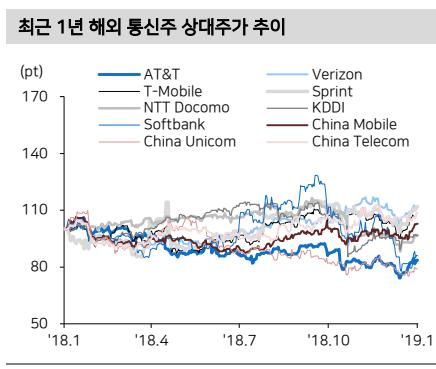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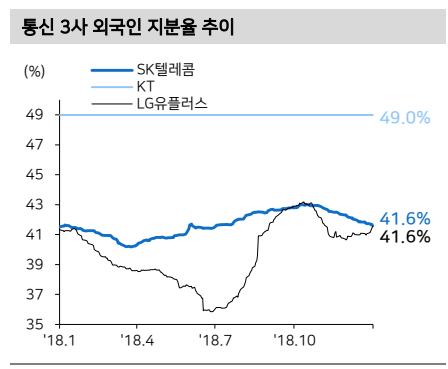
주요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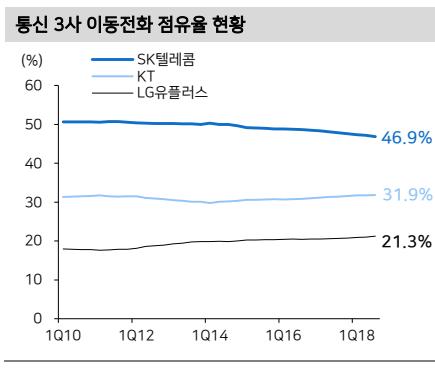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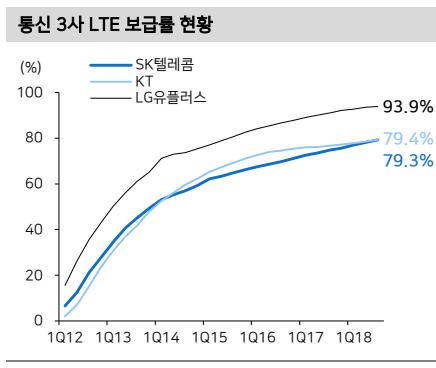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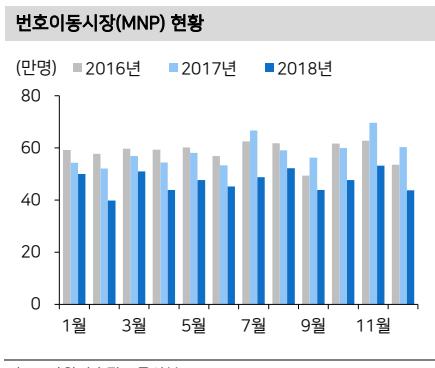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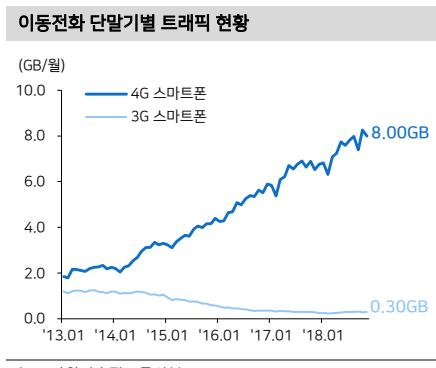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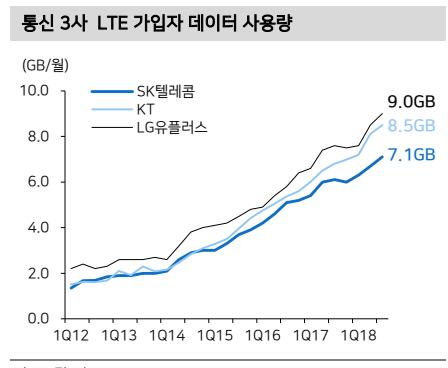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각사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01월 1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01월 1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동 자료는 투자자를 위한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